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례 '주목'

## 순창군, 도내 군단위 중 출생아 수 증가 귀농·귀촌인구 1000명 달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군단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귀농·귀촌인구 1,000명을 달성한 순창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은 2015년 186명이던 신생아 수가 지난해 254명으로 68명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8개군 모두 신생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특히 2014년 148명에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군은 신생아수 증가의 원인을 단순 지원금 위주의 출산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입체적 출산지원 정책에서 찾았다.

순창군은 우선 단계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또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지원대

상 기준도 완화했다.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 검사비도 지원해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출산과 함께 입체적 정책을 통한 양육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가 있다.

또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관리를 해 주는 건강관리 사업과 육아용품 지원 사업, 출생축하 기념품 지원사업, 돌맞이 사진 촬영권, 지역신문과 함께하는 출생축하기사 보도, 공공장소 터미널 수유방 설치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힘을 쏟는 정책은 귀농귀촌 정책이다. 귀농귀촌정책은 젊은 층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가능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순창군 귀농귀촌 유입 인구는 618세대 1,010명이다.

군은 박람회나 수도권 홍보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와 농촌생활 교육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해 귀농인의 집, 체재형 실습농장, 귀농인 마을 등 임시 거주지 조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사업,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인이 정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순창의 귀농귀촌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주 군수는 "순창군은 입체적인 출산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지원책과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해 사람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순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강소기업 육성 소통행보 이어가

## 지리산한지 방문 간담회 개최... 한지산업 지원·발전 논의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 28일 지리산한지(유)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소통행보를 이어나갔다.

지난 9월재성 방문에 이어 이번 기업체 방문은 한지絲, 전사지(의류원단)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업경영 현황 및 기업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경청이 이어진 가운데 한지산업 지원 및 발전에 대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간담회 시간에는 근로자의 격려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및 규제사항등을 청취 하였다. 김동훈 대표는 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며, 갈수록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리산한지(유)는 1997년에 설립되어 3대째 종이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로 전통적인 기법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매출이 매년 성장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민원실 '새단장' 마쳐

## 쉼터방 테이블·의자 등 2인용 테이블 추가 설치

군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실군 민원실이 새단장을 마쳤다.

먼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인 쉼터방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를 밝은 색상으로 교체하고 2인용 테이블을 추가 설치했다.

그동안 창구 앞에 서서 민원을 신청하는 불편 해결을 위해 민원용 의자를 새롭게 배치하는 등 민원인 중

심'의 내부 환경 정리를 실시했다.

또한 인터넷방, 복사기와 파쇄기, 열압크기, 체중계, 휴대폰 충전기, 자동제세동기 등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 전문상담창구와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안내판을 설치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임실군 민원실은 매수 수요일 8시까지 여러 연장근무, 민원사전예약제, 거동불편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

무인 발급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친절역량 강화 교육, 팀장 5명으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주력하고 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제공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산상콘서트 성료

## 남원시, 내달 4일·11일에도 공연

남원시가 백두대간 트리하우스에서 지난 28일 첫 산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산상콘서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숲에서 행복을 찾고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남원 팔하모니 오케스트라(대표 이소운) 단원들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진 열정적인 클래식 연주와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관람객들을 감동시키고, 행복을 안겨 주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시작으로 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passion 등 대중적인 클래식 연주와 푸니 푸니 푸니콜라, 비록, 청산에 살리라, My heart will go on 등의 노래는 숲 속에서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숲속의 산상콘서트

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잘 꾸며진 숲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마음껏 숲을 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상콘서트의 개최에 이어 8월 4일, 11일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명사와의 만남이 트리하우스 야외공연장에서 계속 이어진다.

트리하우스는 사람이 거주하기 가장 좋은 해발 600 ~ 700m 천연의 자연 숲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백나무 마감재와 주위 소나무에서 진하게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트 섞인 신선한 공기는 일상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한편,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세계 희귀곤충동물 특별전이 7월 29일에서 8월 27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을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임실군 임실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형남)는 지난 28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7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비롯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임실(치즈축제 기간 읍·면 경연대회 참가 세부 논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임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임실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팀(☎640-4012~4)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경찰, 찾아가는 사전등록제 실시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경찰의 전산망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시스템 제도이다.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길을 잃은 아동들이 본인의 집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등을 기억하지 못 할 때, 경찰의 지문인식 방법으로 실종 아동등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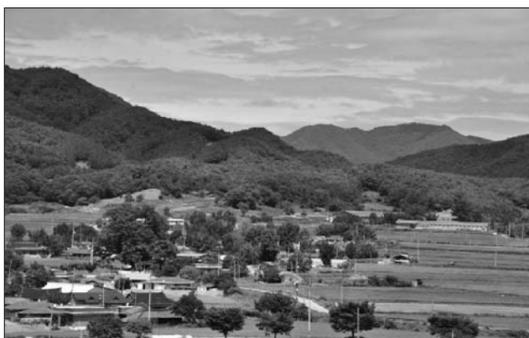
순창경찰서는 관내 아동시설, 장애인·노인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해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향교동 어르신 위한 법률 교육 실시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남례)는 지난 27일 향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알수록 좋은 법'이라는 주제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물품판매 사기피해 예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전문 강사가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남원준법지원센터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 법률교육, 국민공모제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발굴·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백암마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준공

순창군은 지난해 7월부터 팔덕면 백암마을 일원에서 추진해 온 백암마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올해 8월말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마을 단위 위험, 비위생 취약시설 생활환경개선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백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정라북도 주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지난해 7월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 총 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또한 사업계획 및 세부설계 관련 주

민설명회 개최, 타지자세 우수지역 견학, 수시 마을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좁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확포장, 취약한 안길 하수구를 개선하고 비위생적인 마을 도랑을 생태환경 도랑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낙후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산나무 주변과 새마을 공동창고를 정비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